

‘평화’...전쟁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꿈꾸다

● 2024 국제평화영화제 및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시상식
16-19일 서울·나주·광주 일대서...30여편 상영작 선배
평화영화상에 임권택 감독·특별상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세계 각국 평화와 민주주의를 기리는 2024 제7회 국제평화영화제가 오는 16-19일 서울·나주·광주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김대중재단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대한민국 헌정회가 공동주최한다. '평화, 우리가 꿈꾸는 전쟁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는 전쟁·갈등·양극화·환경 위기 속 희망과 연대를 탐구하는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12개국 장·단편 다큐, 애니메이션 등 30여 편의 다채로운 작품 상영을 통해 전세계 영화인과 관객들에게 평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먼저 16일 오후 2시 서울 국회박물관 2층 국제협력관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동호 부산영화제 전 조직위원장, 정지영 감독, 박중훈 배우 등 영화계 유명인들의 메시지 영상도 상영된다. 개막행사와 함께 제12회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시상식도 열린다. 올해 수상자로 임권택 감독이 선정됐으며, 특별상은 프랑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가 받는다. 인류의 존엄과 휴머니즘,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다룬 영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임 감독은 한국 영화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국민 감독이다. 영화 '두만강이 잘 있거라' 감독으로 데뷔해 '취화선'으로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는 등 다수의 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랑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는 1936년 설립 이래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시네마테크로 영화 보존과 상영을 통해 국제적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지향하는 등 평화를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 받았다. 16일 나주 CGV에서는 세계적 거장 켈 로치 감독의 은퇴 작품인 '나의 올드 오크'가 개막작으로 상영된다. 영국 북동부 한 폐광촌을 배경으로 폐광촌 주민들과 시리아 난민들의 갈등을 다룬 영화로, 연대의식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전국대학생 독립영화제 수상작과 함께 지구 위기를 알리는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작지원), 2024 헛스 페터상 수상작 '지금 가져오선', '인사이드 이란: 자유를 위한 투쟁', '가자로부터 온 목소리: 가자의 응급구조대', '가자로부터 목소리: 가자의 어린 목격자'가 스크린에 걸린다. 18일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원으로 제작된 '사진신부', '목소리들', '이타카로 가는 길'을 비롯해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장편부분 수상작 '로봇 드림' 등이 상영된다. 19일 광주 롯데시네마 총장로에서는 '청년 사업가 김대중-애니툰', 임권택 감독 헌정영상이 준비돼 있다. 이날 폐막작 '마리우폴에서의 20일'도 관객들과 만난다. 제9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으로 2

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포위된 우크라이나의 거대한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전세계가 영원히 몰랐을 진실을 보도한 AP취재팀의 가장 위대하고 절박했던 20일을 다룬 작품이다. 국제평화영화제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는 다양한 전통 및 현대적 예술의 만남, 평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는 국제적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바이올린 여제’ 사라 장, ACC 무대

오는 26일 예술극장1...탁월한 기교·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

“올 연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공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ACC슈퍼클래식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을 개최한다. 여덟 살에 거장 주빈 메타, 뉴욕 필하모닉과의 협연으로 세계 무대에 데뷔하며 큰 주목을 받은 사라 장은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으며 더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9년과 2022년 한국 투어 당시 전 도시에서 매진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다. 탁월한 기교와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으로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아 온 사라 장은 이번 리사이틀에서 클래식 애호가들을 위한 다양한 명곡을 들려준다. 특히 고전과 낭만 시대의 대표적인 바이올린 곡들을 연주하며, 그녀의 폭넓은 음악 세계와 연주 기량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무대는 미국 피아니스트 홀리오 엘리잘 데와 함께 요하네스 브람스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작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꾸린다. /최명진 기자



국립나주박물관, 전남 국·공립박물관 문화유산 보존처리

목포자연사박물관·한센병박물관 기록자료 등

국립나주박물관은 11일 문화유산 보존처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과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신청을 받아 보존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물관 협력망 강화와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관·관리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존처리 시설과 인력

이 없는 전남지역 박물관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장품인 조희관의 수필집 서적 ‘철없는 사람들’ 등 지류와 금속 8점은 보존처리 후 바로 전시 활용으로 이어져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했다. 소록도의 생활사를 간직한 국립소

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소장품 ‘중요사실기록 사진첩’ 등은 향후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태 국립나주박물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전남도 소재 국·공립박물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중심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삶의 언덕 너머, 희망을 마주하다

전문예술극단 예인방 연극, 18일 나주 한국전력거래소

《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이사장 김진호)의 특별기획 연극 ‘언덕 너머서 가자’가 오는 18일 오후 7시 나주 한국전력거래소 다습홀에서 펼쳐진다. 연극 배경으로 등장하는 낡고 허름한 고물상은 각 인물이 숨겨둔 상처와 희망을 되돌아보게 하는 상징적 장소다.

연극은 삶의 무게에 눌려 고개를 들기 어려운 순간, 서로 기대어 희망을 찾아가는 세 인물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완’은 고물상에서 버려진 물건의 가치를 찾아내며 살아가는 인물로, 극단 예인방의 수석단원인 김호영이,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



는 허술한 도박 중독자 ‘자롱’은 배우 홍순창이 맡았다. ‘다혜’는 과거의 아픔을 안고 고물상에서 찾아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인물로, 연극계 ‘무대의 여제’ 임은희가 연기한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상주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